

스타셰프와 곡성 대표 먹거리 개발한다

토란대 돌솥밥·물김치 등 음식점 5곳 선정 레시피 전수 상표권 등록해 브랜드화 추진

곡성군이 스타셰프 강레오 씨와 함께 곡성음권 대표 먹거리 개발에 나섰다. 최근 곡성군청에서는 곡성음권 대표 먹거리 개발 시사회가 열렸다. 시사회에는 고추냉이 흑돼지 석쇠구이와 토란대 돌솥밥, 아기멜론 장아찌 등의 요리가 등장했다.

고추냉이 흑돼지 석쇠구이는 석곡흑돼지 석쇠구이에 고추냉이 물김치와 곁절이를 곁들인 음식이다. 돼지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줘 흑돼지의 맛을 더욱 북돋웠다는 평을 받았다. 토란대 돌솥밥은 돌솥밥 위에 지역 특산물인 토란대를 곁들여 구워 구수하고 건강한 맛을 높였다. 아기멜론 장아찌는 멜론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으로 입맛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 시사회에서 선보인 메뉴들은 식도락이 대세인 여행 트렌드에 맞춰 특화 음식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곡성군이 스타셰프 강레오 씨와 함께 개발했다. 심사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음식점 5개소를 선정하고 지난 7월부터 레시피 개발에 나섰다. 음식점은 우리식당, 우마루 플러스, 반배, 생선나라, 진정엄마네가 참여했다. 개발된 먹거리는 10월 중순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시사회를 시작으로 곡성군은 강레오 셰프를 통해 사업 참여 음식점 5개소

의 업소별 특색에 기본 레시피를 가미해 최종적인 요리를 전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음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점차 다른 음식점으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곡성을 맛볼 수 있도록 밀키트 제작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곡성군은 참깨탕과 은어 요리가 대표 음식이지만, 여행객들이 식도락을 즐기기에 다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 오

래전부터 대표 음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음식 개발에 발 벗고 나선 곡성군은 석곡 흑돼지를 또 하나의 특화 음식으로 내세우며, 흑돼지와의 궁합이 좋은 음식을 찾고 있다. 시사회에 참석한 A씨는 “육류를 많이 먹으면 느끼할 수 있는데 고추냉이 물김치 등이 전체적인 맛을 조율해 음식 맛을 더욱 끌어올려 준다”며 “앞으로 컨설팅을 통해 가계별 특색에 맞게 색다른 변화를

준다고 하니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음식점 업주 B씨는 “강레오 셰프와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새로운 음식 개발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이번에 개발한 특화 음식을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이미지 디자인과 상표권 등록 등을 통해 브랜드화할 계획이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곡성군은 최근 스타셰프 강레오 씨와 함께 개발한 곡성음권 대표 먹거리 시사회를 개최했다.

/곡성군 제공



주한 멕시코 대사관이 14일 순천만국가정원 멕시코정원에서 멕시코 독립 200주년과 독립 선언 21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순천시 제공

순천만정원, 멕시코 독립 200주년 행사

양국 지속적 동행·우정 상징 포인세티아·천수국 꽃 심어

순천시와 순천만국가정원 멕시코정원에서 멕시코 독립 200주년과 독립 선언 21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한 멕시코대사관이 주최한 이번 기념행사는 멕시코의 역사적인 순간인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허석 순천시장, 브루노 피게로야 주한 멕시코대사, 멕시코 기업 (주)에스디케이의 까를로스 마하레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브루노 피게로야 주한멕시코 대사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멕시코정원 이름이 있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멕시코 독립 200주년과 독립선언 211주년을 기념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축사, 기념사와 함께 멕시코정원을 관망하고, 멕시코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는 꽃 심기 행사를 가졌다. 기념꽃은 멕시코 전통 꽃으로 양국의 지속적인 동행과 우정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축복을 상징하는 포인세티아와 우정을 뜻하는 천수국을 심었다. 순천만국가정원 내 멕시코정원은 멕시코의 유서 깊은 유적인 엘 카스티요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전망대와 관람석, 20세기 멕시코 대표 건축가 루이스 바라간의 집을 재현해 정열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방문객들에게 고풍스러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멕시코정원은 멕시코 특유의 건축 벽과 눈에 띄는 색, 멕시코 사인보드와 선인장 조형물, 멕시코가 원산지인 식물들이 있어 포토존으로 인기가 높다”며 “이번 기념행사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멕시코와 우리나라가 한층 더 가까워지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성 기자

여수, 오늘 도시관리정책 토론회

시민들 대상 의견수렴

여수시가 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정책 마련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관리정책 토론회’를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여수시는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시민단체, 시의회, 언론 등 분야별 대표 7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바다와 섬을 품은 국내 대표적인 관광휴양도시로 급부상하면서, 경관이 수려한 해안가를 중심으로 펜션 등 관광 숙박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급증으로 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가 돼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순철 동시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경관지구 내 건축물 규모, 생태 기준, 비탈면·옹벽 설치 기준, 녹지 확보 기준, 오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자연녹지지역 내 대규모 개발행위 문제 등 개발행위 관련 정책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양관광휴양도시의 정체성 유지와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발행위 현황 및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도시관리정책 수립 및 관련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추석 연휴 환경오염 특별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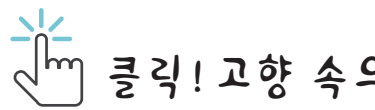
여수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하천과 폐수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특별감시는 오는 26일까지 기후생태과, 산단환경관리사업소를 중심으로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환경오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전에는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신고와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집중 홍보에 나선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기자

관광연계·성장가능 우수가게 육성

‘기차마을 패러글라이딩’ ‘모짜르트 제과점’ 선정 인증서 수여·시상금 지급

곡성군이 지역 우수가게 2곳을 곡성군 스타가게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곡성군은 관광 연계 효과와 성장 가능성에 큰 소망공인을 발굴해 지역 대표 명물도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올해부터 스타가게를 선발한다. 올해는 전문가 심사와 군민 투표로 곡성기차마을 패러글라이딩과 모짜르트 제과점이 선정됐다. 곡성기차마을 패러글라이딩은 패러글라이딩으로는 유일한 한국관광공사 우수레포츠 선정업체이다. 2017년 문을 연 이래 연평균 5,000~6,000명이 방문하며, 곡성군의 대표 액티비티로 자리 잡고 있다. 곡성역에서 가까운 접근성이 좋고 섬

진강과 곡성군의 산세를 느끼고 싶은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모짜르트 제과점은 1999년 개업한 동네빵집이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우리밀을 사용한 기본에 충실한 빵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지역특산물인 곡성토란을 이용해 만든 토란빵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푸드뱅크를 통한 나눔 활동, 매일 독거노인을 위한 빵 기부 등 지역사회 나눔에도 적극적이다. 곡성군은 이번에 선정된 스타가게 2곳에 대해 스타가게 현판 및 인증서를 수여하고 각 1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스타가게들이 우리 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보성경찰, 복지시설 생활용품 전달

보성경찰서는 최근 코로나19 사각지대에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의 손길을 전달하기 위해 복지시설 등을 방문했다. 이날 보성경찰서는 굵어 자투리 및 경찰발전 위원회가 마련한 기금으로 별도 교유에 있는 ‘별교 작은 자의 집’과 생활환경이 어려운 소외계층 등 3곳을 방문해 화장지, 세탁세제 등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전달했다. 오임관 서장은 시설 주변을 살피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도 힘든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순천대, 인문·사회계열 특화과정 운영

순천대는 최근 재학생과 지역 인문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을 돕는 ‘인문·사회계열 특화과정’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컴퓨터활용능력 2급 과정을 지도해 기본 행정 사무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기 교육이 추가된 종합과정으로 운영됐으며 수강생 19명이 수료했다. 자격증 교육은 ▲컴퓨터활용능력 필기강의 ▲스프레드시트 기본작업 ▲스프레드시트 분석작업 ▲스프레드시트 기타작업 ▲모의고사 및 기출문제 풀이 등으로 이뤄졌다. 심상덕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인문·사회계열 청년 구직자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다양한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연 기자

광양 옥곡면 한울회, 집수리 봉사활동

광양시 옥곡면 한울회는 최근 취약계층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한울회는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세대를 찾아가 주방기와 도배·장판을 교체하고 전등·전선 정리, 대청소 등을 진행했다. 집수리를 지원받은 한 주민은 “생활